

한국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 개인 표상과 사회 표상*

이종택
동양공업전문대학

김범준*
경기·연세대학교

최인철
서울대학교

박수애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불안 수준을 예측하고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의 발생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01명을 대상으로 연구 1을, 2개 신문을 대상으로 연구 2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모두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 불안 예측은 현재보다 사회불안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과거에는 정치적 사건이 그리고 현재에는 경제적 사건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미래의 경우에는 정보 관련 사건이 사회 불안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신문기사분석을 실시한 연구 2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에 가까워올수록 사회 불안과 관련된 기사의 수가 더 많아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 불안, 사회 불안 수준 변화, 개인 표상, 사회 표상

사회 불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작 심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 심리학계에서 2004년을 기점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수애, 송관재, 2005; 이훈구, 2004;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전통적인 사회 심리학에서 사회 불안 연구는 이성간의 두려움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낯선 사람과 관련된 불안감과 수줍음 등과 같이 대인관계상에서의 불안을 주로 다루어 왔다(홍영오 등, 2006). 그런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 불안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실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거시적 사회 불안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불안감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박수애, 송관재, 2005). 예를 들어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가 불안하다고 할 때의 그런 불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불안과 거시적 사회 불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는 특정 사회 사건 또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지각하는 불안이라면, 후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연구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김범준,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6-5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전화 : (031) 249-9195,

E-mail : kimbj@yonsei.ac.kr

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일종의 집합적 불안(collective anxie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분은 이를테면 사적 불안과 공적 불안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독거의 경우에 개인적 불안이 해당자 본인의 불안이라면, 사회 불안은 전반적 독거 상황(중대)에 대한 일반인의 불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불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회 불안은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실제로 불안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신체적 장애나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이기주의나 사회적 딜레마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나 전체 사회에는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심리적 불만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본, 박수애와 송관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일반적으로 걱정증상과 신경증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지배력이나 긍정적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분야의 안녕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와 상관성이 높다. 즉, 사회 불안은 개인 수준의 불안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불안을 초래한다. 또한 정치 불안이 높으면 푸념, 불평, 실수, 점보기와 같은 포기 반응이 주로 나타나며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은 소망적 사고를 통한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과 그 변화

사회 불안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 사회 불안 수준을 한마디로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랜 관심사였음은 분명하다. 국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국민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의 추구라고 볼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례로 통계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사회통계조사를 발표하면서 안전이나 사회 불안과 관련된 조사를 발표해 왔다. 즉, 2005년 사회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6.0%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는 불안감은 36.8%, 식료품이나 약품 같은 상표가 주는 불안감은 59.4%, 그리고 해킹과 같은 정보의 유출이 주는 불안감은 58.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척도방식을 이용한 연구결과도 있다. 박수애와 송관재(2005)는 사회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사회 불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70.28로 사회 불안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영오 등(2006)도 2003년에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 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11점 척도(0에서 10)를 이용하여 사회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6.83으로 한국사회를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사회 불안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들에서 우리는 주로 사회 불안을 느낄까? 우리나라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연구한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불안 영역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자유반응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정치와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 때문에 한국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1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인 불신과 부정부패/비리, 공공기관 불신의 순서로 답하였다.

박수애와 송관재(2005) 역시 사회의 영역별 사회 불안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미래 불안이 46.35로 가장 낮았으며, 공정성 불안(64.56), 경제 불안(63.13), 정치 불안(62.85) 등이 높은 사회 불안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정치나 경제 영역에 대한 사회 불안이 비교적 높고, 이에 덧붙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회 불안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의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홍영오 등(2006)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회 불안 수준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년 전은 6.79, 10년 후에는 6.13으로 과거 사회가 현재보다 덜 불안하였고 미래 사회가 현재보

다 덜 불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세밀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가 세 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만을 조사하는 것에 그쳐 보다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료 조사를 일정한 기간(2년 혹은 3년)의 시간 간격에 따라 보다 폭 넓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살펴보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들

Lazarus와 Lazarus(1994)는 어떤 사건, 상황 또는 대상이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 등을 위협하게 만든다고 지각할 때 개인은 불안을 지각한다고 하였다. 즉, 불안을 유발시키는 기본적인 자극으로서의 사건들이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타인에게 평가받을 일, 비판이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바로 불안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건이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위협이 되며, 이 같은 사건들이 개인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위협, 경제적 어려움, 실직, 취업의 실패, 불안정한 정국, 대형 건축물의 붕괴, 범죄, 원자력과 관련된 핵문제, 새로운 과학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사에서 보면,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는 자연재해, 시설물, 상표, 정보유출과 같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통계청, 2005).

보다 학문적 체계에서 보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은 안전(safety)이나 위기(risk)라는 측면에서 사회 불안을 연구해 왔다(한덕웅, 2003; 한덕웅, 강혜자, 2000;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군석, 1995; Beck, 1992; 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 Comb, 1978; Slovic, 1987;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0, 1981; Slovic, Lichtenstein, & Fischhoff, 1979; Starr, 1985; Vail, Wheelock, & Hill, 1999; Wilkinson, 2001). 이 중 한덕

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관련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였으며, 다음으로 교통 문제, 범죄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같은 사회적 사건들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영중(2000)은 한국의 IMF 경제 위기 전, 후의 질병이환율, 의료이용 및 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전체의 사망률,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순환기계 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사회적 사건이 신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도 있다. Twenge(2000)는 1952년부터 1993년까지 대학생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던 불안과 신경증 자료들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인 불안수준과 상관없이 1950년대 이후 실제로 불안수준이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검토된 불안의 형태는 특질불안으로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개인차 형태의 불안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대학생과 아동들이 1950년대보다 더 많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그는 각종 사회적 지표(예, 이혼율, 범죄율 등)와 불안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안 수준은 환경의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즉, 이혼율의 상승, 독거의 증가, 타인의 신뢰감 저하 등이 간접적으로 개인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흉악범죄나 핵전쟁의 위협,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대한 공포와 1950년대 이후 미디어의 발달이 환경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넓힌 것도 불안 수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Twenge는 현재 시점에서는 범죄발생률이나 핵전쟁 등 몇 가지 환경상의 위협정도가 약해지고는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이혼율은 약간 낮아졌지만 독거생활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낮아진 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별로 개선되지 않아서 불안의 수준이 낮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사건들)이 우리가 지각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다. 홍영오 등(2006)은 46개 사회적 사건들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은 취업난(실업),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정보화 사회 관련 요인과 비윤리적 범죄, 강력사건의 증가와 같은 범죄 관련 요인들이 비교적 상위의 순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후 문제와 같은 사회보장과 정치문제 등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시대가 변함에 따른 중요 사건들의 변화를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시대가 바뀌면, 어떤 범주의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건이나 범주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에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칠까를 미리 예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보나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인 표상 대 사회 표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살펴본 사회 불안은 주로 개인이 느끼는 사회 불안의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의 발생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개인 수준의 사회 불안 정도나 사건을 ‘개인 표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객관적 사회 불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알아본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 답을 얻기도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몰가지수라는 것을 산출하여 이것을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이 보다 객관적 현실을 통해 사회불안 수준 혹은 정도를 알아볼 수 없을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매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실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것을 본 연구에서는 ‘사회 표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체이다. 오늘날 매체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나,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매체로는 신문과 텔레비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신문을 통해 사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른 매체에 비해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일상의 사건들 즉, 기사(뉴스)란 하나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객관적 형태로 부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권위와 연관되면 바로 기사(뉴스)가 되는 것이다(Lippman, 1991). 즉, 기사(뉴스)란, 기사(뉴스)와 사회의 연계 및 관련성에서 비롯된다(최창섭, 1997). 다시 말해, 신문에서 보도되는 기사가 우리 사회를 일정하게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 현실과 신문 기사와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현실 사회 반영론’으로 신문기사가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실 사회 구성론’으로 신문기사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 현실을 다시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연정, 2005).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되는 신문 기사는 일정하게 우리 사회의 실제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두 입장 모두 일정하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 기사를 통해 그 당시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과 관련된 보도 기사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그 시대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변혁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의 전면적인 재편과 관련제도의 개혁, 지식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발전과 가치관의 혼돈 등 지금까지 그 어느 시대에서도 겪지 못했던 빠르고 다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 덧붙여 대형 안전사고와, 각종 로비 의혹 사건들, 여러 사회 집단

의 시위나 농성, 파업 등의 사건들이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발생할까? 만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Twenge, 2000),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범준, 박수애, 그리고 송관재(2005)는 국내 대표적인 일간지의 1995년과 2002년의 헤드라인 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사회불안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5년의 경우, 340개의 신문헤드라인 기사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사가 11%, 중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사가 46%,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사가 4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2년도에는 전체 기사 314개 중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사는 12%로 1995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사가 28%로 줄어들었다. 한편,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사가 6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더 많이 발생했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2개년도만의 비교로서 장기적인 사회불안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헤드라인만을 조사한 것에 그쳐 보다 자세한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다 사회적 실체에 가깝게 살펴보려면 기사 전체에 대한 고찰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상당한 수준으로 불안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불안을 느끼는 한 원인이 바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들이 주로 현재의 사회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현재의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건들이나 범주는 어떤 것인가와 관련된 현상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연구가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불안 유발사건 내용의 변화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건, 즉 미래의 중

요 사건 예측과 같은 사건들의 변화를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불안에 관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 개인들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들을 살펴보았다(개인 표상). 그리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건과 관련된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실제로 우리 사회가 불안했는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사회 표상). 이러한 사회 불안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사회 현상과는 유리된 개인 심리 현상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사회심리에 사회가 없다”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는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연구 1 : 개인표상

연구 1에서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도록 하였다(이를 ‘개인 표상’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사회 불안에 대한 개인들의 기초 자료 수집과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가자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01명으로 남자가 165명(55%), 여자가 135명(45%)이었다(연령은 19세에서 64세의 범위로 평균 34.68세였다 : 대학생 평균 연령, 22.66세; 일반인 평균 연령, 49.73세). 이 중 대학생은 55.3%인 167명(남자, 105명(63.3%); 여자, 61명(36.7%); 무응답, 1명), 일반인은 44.7%인 134명(남자, 60명(44.8%); 여자, 74명(55.2%))이었다. 결혼 여부에 따른 특성을 보면, 응답자 중 기혼 126명(41.9%), 미혼 168명(55.8%), 이혼/별거 4명(1.3%), 재혼 1명(0.3%), 기타 1명(0.3%), 그리고 무응답이 1명(0.3%)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종교는 기독교 89명(29.6%), 불교 47명(15.6%), 천주교 54명(17.9%), 무교 105명(34.9%), 기타 4명(1.3%), 그리고 무응답이 2명(0.7%)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가 215명(71.4%), 전세 43명(14.3%), 월세 17명(5.6%), 기타 24명(8.0%), 그리고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응답자들의 가정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18명(6.0%),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29명(9.6%),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48명(15.9%), 301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64명(21.3%), 401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70명(23.3%), 501만 원 이상

66명(21.9%)이었고 무응답이 6명(2.0%)이었다.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교의 여림학기 심리학 관련 수업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생 참여자들은 해당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수업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응답한 후 다음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나 주변의 성인(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도록 한 후 다음 수업시간을 통해 제출하게 하였다. 일반인 자료를 수집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자료는 2005년 7월 18일에서 7월 29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조사내용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양상 측정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 정도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추세를 가지고 변해 갈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다. 만약 과거에서부터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회 불안을 측정하여 왔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불안 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회상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과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했었는지를 '회상'하게 하고, 앞으로 불안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에서 2011년 까지를 3년을 주기로 하여 각 시점에서의 사회불안 수준을 그래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던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래 도표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2005년 현재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고, 1993년부터 매 3년 간격의 과거와 2011년까지의 3년 간격의 미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교차점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최대 불안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회 불안 유발 사건의 변화 양상 측정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양상에 대한 회상과 예측에 더

하여, 각 시점 별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혹은 만들 사건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홍영오 등(2006)이 사용하였던 사건들과 최근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사건들을 포함하여 70여개의 사회 불안 유발 사건들(부록 1에 자세히 제시하였음)을 제시하고, 20년 전, 현재,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거나 불안하게 만들 사건을 중요도 순으로 각각 10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심리적 표상 속에서 사회 불안 요인들이 어떤 변화를 거쳐 왔고 앞으로 거쳐 갈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외에 성별, 나이, 종교,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상태, 학력,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이 조사되었다.

결 과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회상과 예측

전체적 변화

사회 불안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은 척도를 개발하는 방식과 더불어 몇 가지 방식이 제안되어 왔다(박수애, 송관재, 2005; 이훈구, 2004; 홍영오 등, 2006). 이 같은 척도방식의 사회 불안 측정은 과거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미래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회상과 미래의 예측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방식의 사회 불안 수준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1993년부터 2005년까지는 사회의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불안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F(6, 270)=59.54, p<.001$.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의 경우, 1993년의 사회 불안 회상 점수는 44.86(23.35)점을 나타냈지만, 1996년에는 51.59(21.83)점, 1999년에는 63.34(20.32)점, 2002년에는 61.32(16.90)점, 2005년에는 68.52(15.46)점으로 지속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1996년과 1999년은 12.75점이나 상승하였는데, $t(275)=-10.73, p=.000$, 이것은 아마도 IMF위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특징적인 또 다른 현상은 1999년과 2002년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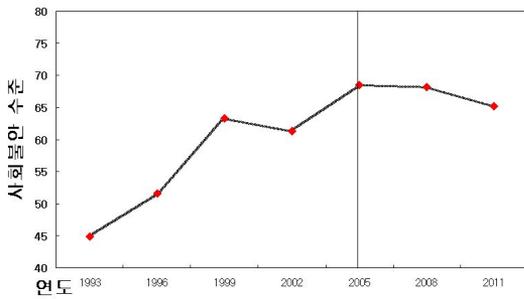


그림 1. 사회 불안 수준의 예측(전체)

고 2005년 사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의 사회를 회상할 때 사회의 불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나 2002년에는 오히려 낮아졌다가 다시 2005년에는 더 불안하게 느끼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즉, 1999년과 2002년의 차이를 보면, 오히려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승하던 추세에서 2002년은 1999년에 비해 63.34에서 61.32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275)=-1.97, p=.05$. 그리고 다시 2002년과 2005년 사이에는 불안 수준이 7.20점이 상승하여 조사 시점 현재(2005년)에는 더 불안한 사회라고 판단하였다, $t(275)=-8.85, p=.000$.

이것은 아마도 2002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2년은 잘 아는 것처럼 월드컵 4강의 신화로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축제의 장을 벌였던 시기이다. 아마도 이 같은 즐거운 추억들이 2002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았다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 같다. 이 같은 결과는 월드컵과 같은 세계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미래에 대한 예측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판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 불안 수준이 높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미래인 2008년의 경우에는 2005년의 68.52(15.46)에 비해 68.23(18.37)으로 2011년에는 65.23(22.57)으로 낮아져 미래 사회 불안 수준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t(275)=4.65, p=.000$. 물론 앞으로의 사회를 예측한 불안 수준 역시 중간 값인 50을 넘는 것으로 안전한 사회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1) 두 평균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t(275)=0.45, p=.657$.

만, 사람들이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성별 비교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예측에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남녀 모두 전반적인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전체 집단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성별의 경우, 남자는 1993년에는 44.71(23.46), 1996년에는 51.25(22.39), 1999년에는 64.58(20.92), 2002년에는 61.21(17.97), 2005년에는 66.74(16.49), 2008년에는 66.62(19.43), 그리고 2011년에는 62.94(22.70)를 보여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아지다 2002년에 잠시 안정세로 돌아선 후 다시 조사 시점인 2005년에는 매우 불안한 수준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F(6, 148)=32.06, p<.001$.

여자 역시 1993년에는 45.05(23.31), 1996년에는 52.02(21.18), 1999년에는 61.77(19.50), 2002년에는 61.46(15.51), 2005년에는 70.76(13.78), 2008년에는 70.26(16.81), 그리고 2011년에는 68.13(22.16)을 보여 남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F(6, 116)=29.76, p<.001$. 즉, 과거의 사회적 불안은 현재까지 점차적으로 더 높아졌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미래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지금보다 낮아져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남여 모두에서 2005년과 2008년간의 사회적 불안 수준 예측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남 : $t(153)=0.13, p=.894$; 여 : $t(121)=0.55, p=.585$),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남 : $t(153)=4.29, p=.000$; 여 : $t(121)=2.19, p=.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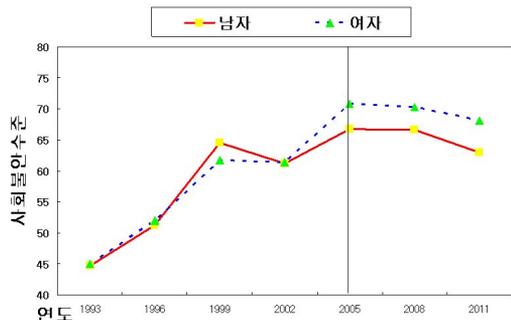


그림 2. 사회불안 수준의 예측(성별)

남녀간의 사회 불안 수준 변화의 전반적 추세 예측의 경우, 1999년과 2002년 사이의 변화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1999년에 비해 2002년에 더 사회 불안 수준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t(153)=2.29, p=.023$.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1999년과 2002년간에 차이가 없었다, $t(121)=0.22, p=.823$.

각 연도마다의 사회 불안 수준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5년과 2011년에서만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05년의 경우, 남자들이 사회 불안 수준을 66.74(16.49)로 본 반면에 여자들은 70.67(13.78)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의 사회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t(274)=-2.16, p=.032$. 그리고 2011년 역시 남자들이 사회불안 수준을 62.94(22.70)로 본 반면에 여자들은 68.13(22.16)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의 사회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t(274)=-1.90, p=.057$.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 위험 연구(김범준, 최인철, 2007; 박수애, 송관재, 2006; Slovic, 200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래 예측에 있어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간 비교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 예측에서 세대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세대간 비교 역시 전반적인 추세가 앞에서 살펴본 두 비교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3 참조). 즉, 대학생의 경우, 1993년에는 42.82(24.01), 1996년에는 51.44(23.23), 1999년에는 64.84(20.56), 2002년에는 61.06(17.26), 2005년에는 68.83(15.18), 2008년에는 69.83(18.09), 그리고 2011년에는 67.38(21.93)을 보여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아지다 2002년에 잠시 안정세로 돌아선 후 다시 조사 시점인 2005년에는 매우 불안한 수준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F(6, 151)=44.79, p<.001$.

그러나 미래 예측은 2005년과 비교해서 2008년 역시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t(156)=-1.13, p=.257$. 하지만 2008년에 비해 2011년은 조금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t(156)=3.12, p=.002$, 이 역시 2005년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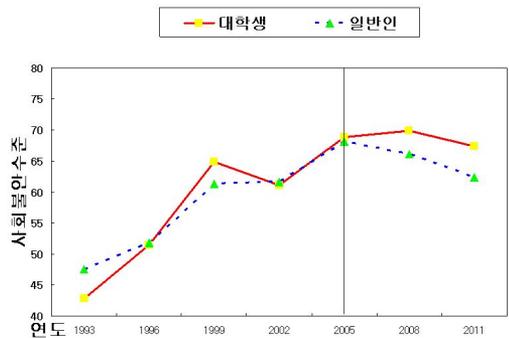


그림 3. 사회 불안 수준의 예측(세대별)

사회적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t(156)=1.05, p=.294$. 이 같은 결과는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대학생들의 경우, 미래 사회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그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 1993년에는 47.56(22.26), 1996년에는 51.79(19.93), 1999년에는 61.35(19.91), 2002년에는 61.66(16.48), 2005년에는 68.10(15.87), 2008년에는 66.12(16.81), 그리고 2011년에는 62.39(23.18)을 보여 대학생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F(6, 113)=19.65, p<.001$. 그러나 대학생들이 미래의 예측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999년과 2002년간의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뿐, $t(118)=-0.22, p=.830$, 다른 시기 사이의 사회 불안 수준 예측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일반인들의 미래 사회 불안 수준 예측은 비교적 현재보다 나은 쪽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연도마다의 사회 불안 수준에 있어서 세대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11년의 경우, 대학생들(67.83(21.93))이 일반들(62.39(23.18))보다 조금 더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게 예측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기성세대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었다, $t(274)=1.83, p=.069$.

1993년도의 사회 불안의 경우 2005년도에 대학생이었던 조사 대상자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나이에 해당되는데, 이 때를 회상하여 사회 불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2005년 이전 자료의 경우

세대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초등학생이라고 하나 가정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는 유사할 것이고, 더구나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와 그로 인한 불안은 유사할 것이다. 예컨대, 소위 군사정권 시대에는 북한 방송을 들으면 빨갱이로 몰려 끌려간다는 공포, IMF 당시의 실직 가정의 위기,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회상이라는 연구의 제약이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 시절의 불안도 조사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불안 유발 사건의 변화 회상과 예측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70개의 사건에 대해 20년 전과, 현재,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사건 10개씩을 중요도 순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중 첫 번째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거론 빈도가 상위 5위안에 속하는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들은 20년 전에는 주로 ‘권위주의 정치’, ‘안전사고’, ‘북한도발’, ‘정치불안’, ‘공직자 비리’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고 회상하였다. 이에 비해 현재는 ‘개인 신용불량’, ‘민생경제불안’, ‘개인정보유출’, ‘취업난’, ‘감시카메라’가 사회 불안을 주로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20년 후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할 사건들은 ‘개인정보유출’, ‘통일에 의한 변화’, ‘감시카메라’, ‘국민연금고갈’, ‘출산율 저하’의 문제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과거에는 주로 정치적 문제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면, 현재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문제와 정보화 관련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미래에는 역시 정보사회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할 것 같으며, 다음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영역과 통일/안보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과거의 불안 유발 사건에 대해서는 남자는 ‘권위주의 정치’, ‘북한도발’, ‘안전사고’, ‘정치불안’, ‘정치지도자 부패’를 들었다. 여자는 ‘권위주의 정치’, ‘안전사고’, ‘북한도발’, ‘공직자 비리’, ‘민생경제

불안’을 꼽았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남자는 주로 정치영역에서, 여자들은 주로 경제영역과 관련되는 사건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불안 유발 사건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개인신용불량’, ‘민생경제불안’, ‘개인정보유출’, ‘취업난’, ‘불안정 고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반면에, 여자들은 ‘개인신용불량’, ‘민생경제불안’, ‘감시카메라’, ‘부동산시장불안’, ‘테러’의 순으로 불안 사건을 보고 있었다.

미래의 경우에는 남자들은 ‘개인정보유출’, ‘통일에 의한 변화’, ‘감시카메라’, ‘국민연금고갈’, ‘출산율저하’를 불안 유발 사건으로 보고 있었지만 여자들은 ‘개인정보유출’, ‘감시카메라’, ‘통일에 의한 변화’, ‘국민연금고갈’, ‘환경오염’을 불안 유발 사건을 보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주로 정보화와 통일/안보영역, 그리고 사회보장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여자들은 환경문제도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세대별로 살펴보면, 과거 불안 유발 사건으로 대학생의 경우는 ‘권위주의 정치’, ‘안전사고’, ‘북한도발’, ‘정치불안’, ‘공직자비리’를 들고 있었으나, 일반인의 경우는 ‘권위주의 정치’, ‘안전사고’, ‘북한도발’, ‘부동산 가격’, ‘정치불안’을 꼽았다. 두 집단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은 정치와 안보위주의 문제를 생각한 반면에, 일반인들은 정치, 안보와 더불어 부동산 문제도 회상하였다. 한편 현재의 불안 유발 사건의 경우, 대학생들은 ‘개인신용불량’, ‘민생경제불안’, ‘개인정보유출’, ‘취업난’, ‘불안정 고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고, 일반인들은 ‘개인신용불량’, ‘민생경제불안’, ‘부동산 시장불안’, ‘감시카메라’, ‘북한도발’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북한도발의 문제를 현재의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 유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은 ‘개인정보유출’, ‘통일에 의한 변화’, ‘감시카메라’, ‘국민연금고갈’, ‘출산율저하’를 꼽고 있었고, 일반인들도 ‘개인정보유출’, ‘감시카메라’, ‘국민연금고갈’, ‘통일에 의한 변화’, ‘개인신용불량’을 중요 문제로 보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정보화 사회와 사회보장, 그리고 통일/안보의 문제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표 1.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사회의 불안과 연관되는 주요사건들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남	20년전	권위주의 정치 (46 / 28.4)	북한도발 (24 / 14.8)	안전사고 (19 / 11.7)	정치불안 (9 / 5.6)	정치지도자부패 (8 / 4.9)
	현재	개인신용불량 (25 / 15.7)	민생경제불안 (21 / 13.2)	개인정보유출 (11 / 6.9)	취업난 (5.7)	불안정고용 (8 / 5.0)
	20년후	개인정보유출 (20 / 12.6)	통일에 의한 변화 (15 / 9.4)	감시카메라 (12 / 7.5)	국민연금고갈 (12 / 7.5)	출산율저하 (10 / 6.3)
여	20년전	권위주의 정치 (27 / 20.9)	안전사고 (19 / 14.7)	북한도발 (12 / 9.3)	공직자비리 (10 / 7.8)	민생경제불안 (9 / 7.0)
	현재	개인신용불량 (14 / 10.8)	민생경제불안 (14 / 10.8)	감시카메라 (9 / 6.9)	부동산시장불안 (9 / 6.9)	테러 (7 / 5.4)
	20년후	개인정보유출 (18 / 13.8)	감시카메라 (14 / 10.8)	통일에 의한 변화 (12 / 9.2)	국민연금고갈 (9 / 6.9)	환경오염 (9 / 6.9)
대학생	20년전	권위주의 정치 (48 / 29.4)	북한도발 (22 / 13.5)	안전사고 (18 / 11.0)	정치불안 (10 / 6.1)	공직자비리 (9 / 5.5)
	현재	개인신용불량 (19 / 11.9)	민생경제불안 (19 / 11.9)	개인정보유출 (12 / 7.5)	취업난 (12 / 7.5)	불안정고용 (9 / 5.6)
	20년후	개인정보유출 (19 / 11.9)	통일에 의한 변화 (18 / 11.3)	감시카메라 (15 / 9.4)	국민연금고갈 (11 / 6.9)	출산율저하 (10 / 6.3)
일반인	20년전	권위주의 정치 (25 / 19.5)	안전사고 (20 / 15.6)	북한도발 (14 / 10.9)	부동산 가격 (10 / 7.8)	정치불안 (8 / 6.3)
	현재	개인신용불량 (20 / 15.5)	민생경제불안 (16 / 12.4)	부동산시장불안 (9 / 7.0)	감시카메라 (7 / 5.4)	북한도발 (7 / 5.4)
	20년후	개인정보유출 (19 / 14.7)	감시카메라 (11 / 8.5)	국민연금고갈 (10 / 7.8)	통일에 의한 변화 (9 / 7.0)	개인신용불량 (8 / 6.2)
전체	20년전	권위주의 정치 (73 / 25.1)	안전사고 (38 / 13.1)	북한도발 (36 / 12.4)	정치불안 (18 / 6.2)	공직자비리 (16 / 5.5)
	현재	개인신용불량 (39 / 13.5)	민생경제불안 (35 / 12.1)	개인정보유출 (16 / 5.5)	취업난 (15 / 5.2)	감시카메라 (13 / 4.5)
	20년후	개인정보유출 (38 / 13.1)	통일에 의한 변화 (27 / 9.3)	감시카메라 (26 / 9.0)	국민연금고갈 (21 / 7.3)	출산율저하 (15 / 5.2)

(괄호안의 숫자는 빈도와 %임)

연구 2 : 사회 표상

연구 1에서는 사람들이 경험했거나 예측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 즉, 개인 수준의 분석을 시도했다면, 연구 2에서는 우리 사회는 정말 불안한가를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현실을 반영

한다고 보여 지는 신문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및 내용

본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선정하고 이들 신문의 기사내용을 분석하

였다. 서울 지역 신문 구독률의 경우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1위가 조선일보(13.5%), 2위가 중앙일보(11.2%)이고, 한겨레의 경우 7위(1.3%)에 불과하다. 다른 해에도 구독률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수 신문이어서 진보 신문인 한겨레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본 연구는 신문간의 기사 비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사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사건 자체는 비교적 충실히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표적 두 일간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절차는 두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사를 검색하여 사회 불안 기사의 수를 분석하는 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때 불안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임상적 불안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73년부터 매 5년을 주기로 해당 연도의 기사를 분석하였고, 유신,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IMF, 월드컵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건들이 있었던 해도 추가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기간과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연구 1에서 1993년을 기준년으로 삼은 것은 그 이전으로 정했을 경우 연구 참가자 대학생들이 태어나기 이전 시점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고, 연구 2는 신문 자료 분석이어서 보다 과거의 자료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훨씬 이전인 1973년 자료부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만 개인 자료와 비교를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중요 사건 연도를 신문기사 분석에 추가하였다. 개인 간의 자료가 3년 간격이라면, 신문 자료의 경우 지나치게 방대하여 5년 간격으로 자료 분석하였는데, 필연적으로 약간의 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한 가지 미리 밝혀 둘 점은 사회가 불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가 항상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안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이 사회 불안 기사 전체를 모두 다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각 해에 불안 기사가 몇 편 쓰여 졌는지 그 절대적인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기사의 수, 그리고 각 불안 기사가 어떤 영역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법이 어느 정도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기사의 분류

검색된 사회 불안과 관련된 기사는 2명의 분류자가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라 부호화하여 입력하였다. 2명의 분류자는 대학원생으로서 본 연구자들이 몇 가지 예가 되는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전에 부호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입력 후 두 분류자간의 일치도의 정도는 .92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정치(안보불안, 정치적 대립갈등, 대외관계불안, 정책불안 등), ② 경제(노사관계, 고용, 물가, 주식시장, 국제경제, 전반적인 경제불안, 부동산, 특정 기업으로 인한 불안 등), ③ 사회(범죄, 사회안전시스템, 교육제도불안, 자연재해, 가치관 관련 불안, 빈부격차, 고령화 사회불안, 질병불안, 집단간 갈등 등), ④ 정보화 사회 관련(개인정보유출, 몰래카메라, 인터넷 문제 등), ⑤ 환경(공해나 녹지, 물 문제 등), ⑥ 기타.

결 과

전체 불안 기사 수 변화

연구 2에서는 개인의 사회 불안 지각과 언론의 불안 보도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기 위하여 대표적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사의 ‘절대적 수’는 신뢰할 수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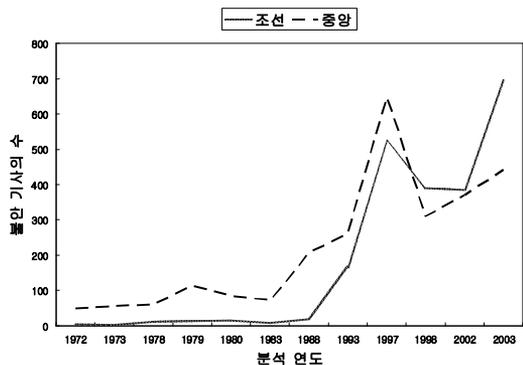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총 불안 기사 수(조선/중앙)

만, 불안 기사 수의 변화 양상은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총 불안 기사의 수는 두 신문 모두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이후에 급격한 상승곡선을 이루어 1997년 최고조를 이루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하향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1972년 총 기사 수가 6개였으며, 1973년 3개, 1978년 13개 1979년 14개, 1980년 16개, 1983년 9개, 1988년 19개 1993년 164개, 1997년 523개, 1998년 390개, 2002년 385개, 2003년 695개였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1972년 49개, 1973년 55개 1978년 59개, 1979년 113개, 1980년 85개, 1983년 72개, 1988년 205개, 1993년 260개, 1997년 647개, 1998년 309개, 2002년 369개, 2003년 441개였으며, 두 신문간의 상관관계는 $r=.898$ 로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문기사들이 다른 불안 기사의 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군사 정권의 시절에는 불안 기사 수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별로 사회 불안 관련 기사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사회 불안 관련 기사들이 급증한 1997년의 기사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이 경우,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1997년 1월에 12개, 2월 6개, 3월 16개, 4월 43개, 5월 43개 6월 59개, 7월 96개, 8월 107개, 9월 41개, 10월 48개, 11월 35개, 12월 17개이며, 1998년 1월 43개, 2월 41개, 3월 30개로 1997년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8년 초반까지 많은 불안 기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다른 해에는 이러한 월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1997년 9월에 33개이던 기사 수가 10월에 87개, 11월에 125개, 12월에 107개로 나타났으며, DJ 정부가 출범한 후 1998년 1월에 37개, 2월에 31개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IMF 사태의 발생 전후에 나타나는 불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신문의 불안 기사의 수가 그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실제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97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 기사를 다룬 회수가 상이하

2)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수를 월별로 살펴보았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1997년의 기사를 예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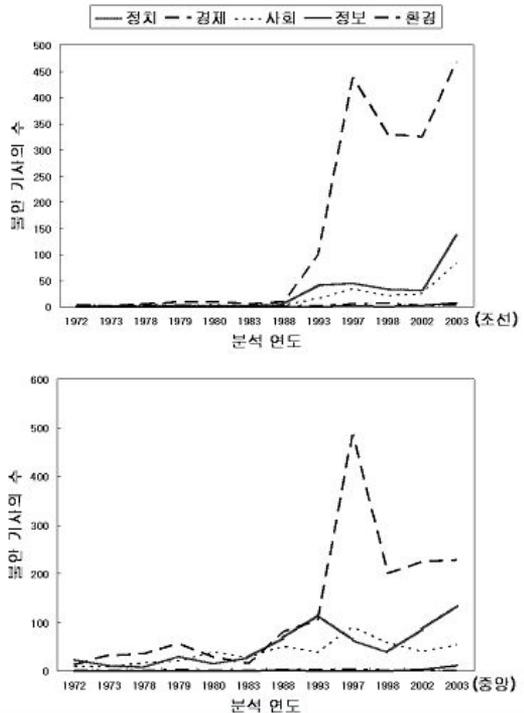


그림 5. 범주별 총 불안 기사 수(조선/중앙)

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조선일보는 8월에 정점에 이르렀던 불안 기사의 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여 대선이 있던 12월에는 17개로 줄었지만 중앙일보는 9월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11월에 최고점에 이르고 12월에도 무려 107개에 달하는 불안 기사를 작성하였다. 물론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불안 기사의 절대적 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신문 간의 상이한 추세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추후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범주별 분석

범주별로 보면,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 불안’ 기사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정치 불안’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도별 변화 상황을 보면 1972년부터 1993년까지는 두 신문 모두 경제 불안 기사와 정치 불안 기사의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 이후에는 경제와 관련된 불안 기사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화 관련 불안 기사는 90년대까지 거의 전무하다가 2000년 대 이후부터 아주 소수이지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불안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불안 기사는 여전히 매우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추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사회 불안 변화 판단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개인들의 불안 표상과 사회적 표상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문의 면수가 시대별로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면수를 고려한 분석을 다시 시도하였다. 이 분석은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 6에서도 1988년 이전으로 보면, 조선일보에 비해 중앙일보에서 조금 더 많은 불안 기사를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주별로 보면 그 비율에 있어서는 두 신문이 보다 비슷한 비율로 범주별 불안 기사를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8년 이후에는 두 기사의 패턴이 더욱 유사한데 하위 범주에서 보면 경제 불안과 관계된 기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매우 특이한 점은 신문 기사 수의 이러한 변화가 개인들이 회상한 사회적 불안 수준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이 회상한 사회 불안 수준은 1999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2002년에 잠시 하락하였지만, 다시 2005년에 오면 불안 수준이 급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런데 신문의 불안 기사의 수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 불안 기사의 정점이 1997년이었던가 2002년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상과 신문 기사의 불안 수준 정점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경우 1996년과 1999년 자료를 수집하였고, 신문은 1997년 자료 자료도 수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1997년 자료가 수집되었더라면, 1997년 말 IMF 당시를 매우 불안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 여파가 1년 이상 갔기에 1999년도 불안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유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다. 신문에서 다룬 불안 기사에 개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인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신문이 그런 기사를 많이 실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불안 요소가 객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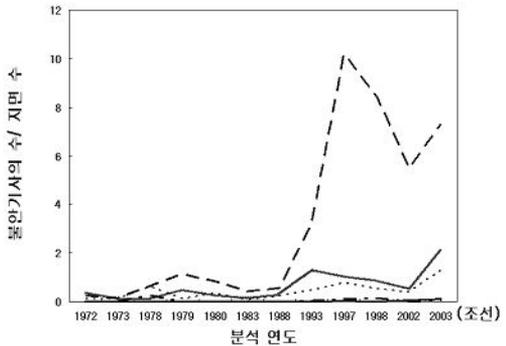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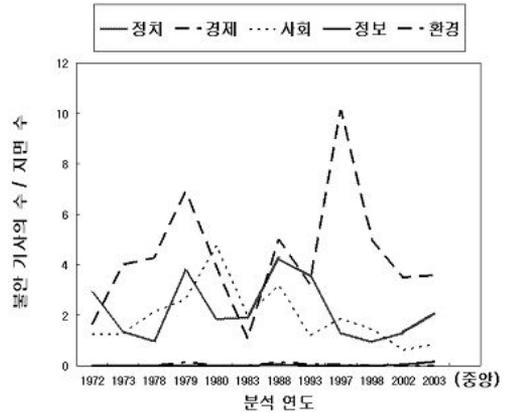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지면 수 대비 불안 기사 수

많았기 때문에 개인과 신문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다.

연도별 자살률과의 관계 분석

통계청 자료 ‘2005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자살률이 5년 연속 상승하여 2005년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6.1명에 달했다. 이는 1995년의 11.8명의 2.2배로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 자살률은 1996년과 1997년 14.1명이었고,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19.9명으로 증가했다가 1999년 16.1명에서 2000년 14.6명으로 낮아진 뒤 2001년 15.5명, 2002년 19.1명, 2003년 24.0명, 2004년 25.2명에 이어 2005년까지 5년 연속 높아졌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사회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2002년의 자살률이 그 이전 수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의 IMF 외환위기 수준과 일치한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 높은 사회 불안과 자살률과는 상관이 있다는 것은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 1과 연구 2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지각하는 전반적 사회 불안 정도와 자살률과는 반드시 일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결과는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개개인이 지각한 사회 불안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개인표상’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결과 개개인의 과거에 대한 평가는 지난 30년 동안 점점 사회가 불안해져서 현재에 가장 사회가 불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현재보다 더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이 낮아져 안정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성별/세대별에 따라 달라졌는데 미래에 대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학생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 같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거 20년 전에는 정치나 안보 관련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 수준을 높였다면, 현재에는 그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 사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감시 카메라’와 같은 사건들이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거기에 더해 통일이나 출산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와 홍영오 등(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같은 정보사회와 관련되는 사회 문제들에 잘 대처하여 우리 미래의 사회 불안 수준을 불안에서 안정의 방향을 전향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사회 불안 수준이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고 지각한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는 불안해졌는가 하는 객관적 사회 현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이를 연구 1의 개인 표상과 대비되도록 사회 표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사회 표상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신문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사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 관련 기사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 불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05년 사이의 불안 관련 기사의 수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회 불안 유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불안하게 지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사회 불안 유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범주별로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에 주를 이루는 사회 불안 유발 사건은 정치와 경제이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경이나 정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 1의 회상 자료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연구 1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은 중간값을 넘어 100점 만점에서 70점에 육박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 불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을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 불안 수준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사회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사회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에 대한 사회불안 수준 역시 60점 이상으로 만족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지금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낙관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을 좋게 한다거나(Aspinwall & Taylor, 1992), 수술 후의 적응(Carver, Pozo, Harris,

Noriega, Scheier, Robinson, Ketcham, Moffat, & Clark, 1993), 그리고 기타 건강에 도움이 된다(유은상, 2004). 그러므로 이 같은 낙관적 경향을 우리가 힘든 현실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힘이 되는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 1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사회 불안 예측의 경우,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미래 사회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더 높게 예측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지각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Slovic, 2000). 예를 들어 김범준과 최인철(2007)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역량 지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사회적 사건에 대한 대처 역량이 더 낫다고 보여지며, 이 같은 원인으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미래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더 높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사회적 사건들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많으면 사회 불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위험 요인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위기 의식 혹은 위험감이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위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Adams, 1995; Renn, 1992)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매개된다.

예를 들어, Slovic과 그 동료들의 연구(Slovic, 1987;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4)에 따르면 대중 매체와 사회적 담론이 여기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 객관적인 기준(예, 사망률)에서 볼 때 훨씬 더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가 그렇지 않은 사건 사고에 비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주관적인 위험은 낮을 수 있다. 언론 매체는 그 특성상 ‘뉴스거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특이한 사건들을 자주 다루게 되고, 매체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그러한 사건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비록 본 연구에서 개인적 표상과 사회적 표상

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실험적 연구를 통해 매체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론적 입장에서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의 사회 불안 수준을 예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이 사회적 현상 또는 개인적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증거 수집의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은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 개발되고 있는 척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사회 불안과 사회(집단) 변화 또는 개인 행동변화와의 관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사람들이 불안 유발 가능성이 큰 사건을 경험하고 지니게 되는 주관적 불안의 지각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사회불안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의 시발점으로서의 가치는 지닌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지각 자체와 행동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주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지각적 경험의 차이가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강력 사건이 증가하면 사회 불안은 더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외출 빈도가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두고 그 증감과 몇 가지 잠정적 주요 요인들에 대한 탐색에 치중하였다.

연구 1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의 정도를 회상을 통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객관성 결여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 불안이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수준의 불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둘째, 인간의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지는 않다. 즉, 기억이 추론과 재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인 틀은 일정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의 경우 세세한 사항에 대한 기억에는 혼동이 발생하겠으나 사고의 유무는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실험 연구와는 다르게 다소 엄격한 방법론적 기준은 사회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대한 혼란 비판 중 하나가 사회심리에 사회가 없다는 것인데,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 동시에 사회 일원에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라도 본 연구와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즉, 사회심리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소한도 장차 연구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류기준에서 성별과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이유는 이 두 변인이 불안 지각과의 관련성을 다룰 때 맨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기타 요인들은 본 연구의 성격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연구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학적 변인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타 변인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 한 형태로 신문을 선택하였고 그 신문 역시 단순히 2개 신문 기사에 한정하였다. 물론 이 두 신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기는 하지만, 모든 신문을 대표할 수 없으며 더구나 모든 매체를 대변할 수도 없다. 구독률을 중심으로 1위 신문과 2위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다른 신문 특히 진보적 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연구의 제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환경이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만큼 매체도 단순히 신문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거나 인터넷과 같은 보다 폭 넓은 매체로 확대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한 대학교의 학생과 그들과 관련된 일반인들에 국한된 것으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예를 들어 노동자와 자본가, 사회의 여론 주도층,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계층간의 사회 불안 수준과 사회불안 변화 예측, 그리고 사회 불안 유발 사건들에 대한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심리적 측면과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의 제한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변인 탐구를 통하여 일반

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범준 (2007). 범죄발생이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3(3), 127-153.
- 김범준, 박수애, 송관재 (2005). 매스미디어와 사회불안. 2005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0-171.
- 김범준, 최인철 (2007). 원자력 안전체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연정 (2005). 기자 성별에 따른 여성 인물의 성별보도 차이연구 : 여성이 뉴스메이커로 등장하는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 1-29.
- 송영종 (2000). 한국의 IMF 경제 위기 전후의 질병이환률, 의료이용 및 사망률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유은상 (2004). 낙관주의 및 귀인 방식과 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 - 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 서울 : 법문사.
- 임현진 외 (2002). 한국 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9(1), 1-21.
- 통계청 (2005).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 한덕웅 (2003). 한국 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9, 35-55.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5-37.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근석 (1995). 한국 사

- 회 문제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 99-111.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2, 129-160.
- Adams, J. (1995). *Risk*. London : UCL Press.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eck, U. (1992). *Risk Society :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 Sage Publication.
- Carver, C. S., Pozo, C., Harris, S. D., Noriega, V., Scheier, M. F., Robinson, D. S., Ketchman, A. S., Moffat, F. L., Jr., & Clark, K. C.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 A study of wome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75-390.
-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 9, 127-152.
- Lazarus, R. S., & Lazarus, B. (1994). *Passion & Reason :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Renn, O. (1992). Concepts of risk : A classification. In S. Krimsky & D. Golding(Eds.), *Social Theories of Risk*. Wesport : Praeger.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 Ltd.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0). Facts and fears : Understanding perceived risk. In R. Schwing and W. A. Albers, Jr.(Eds.), *Societal risk assessment : How safe is safe enough?*(pp.181-214). New York : Plenum Press.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1). Perceived risk : Psychological factors and social implications. In F. Warner and D. H. Slater (Eds.), *The assessment and perception of risk*(pp.17-34). London : The Royal Society.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 56, 183-203.
- Slovic, P., Lichtenstein, S., & Fischhoff, B. (1979). Images of disaster :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risks from nuclear power. In G Goodman & W Rowe(eds), *Energy risk assessment*(pp.223-245). London : Academic.
- Slovic, P., Lichtenstein, S., & Fischhoff, B. (1984). Modeling the societal impact of fatal accidents. *Management Science*, 30, 464-474.
- Starr, C. (1985). Risk management, assessment, and acceptability. *Risk Analysis*, 5, 97-102.
- Twenge, J. M. (2000). The age of anxiety? Birth cohort change in anxiety and neuroticism, 1952-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07-1021.
- Vail, J., Wheeloc, J., & Hill, M. (1999). *Insecure times : Loving with insecurity in contemporary society*. London : Toutledge.
- Wilkinson, I. (2001). Social perception of risk perception : At once indispensable and insufficient. *Current Sociology*, 49(1), 1-21.

Change of Societal Anxiety Level in Korea : Personal vs. Social Representation

Jongtaek Lee	Beom Jun Kim	Incheol Choi	Su Ae Park
Dongyang Technical College	Kyongg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1) to explore the change pattern of societal anxiety and 2) to examine the major anxiety-inducing issues in Korean society. In study 1, we surveyed 301 respondents about their perceptions of societal anxiety and anxiety-inducing issues at various times. In study 2, we analyzed newspaper articles that dealt with societal anxiety published between 1973 and the present. Data analysis shows that survey respondents recalled a gradual increase in societal anxiety but predicted a decrease in societal anxiety in the future. This change pattern of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anxiety was supported by newspaper analysis in Study 2. The number of articles about social anxiety induced increased from the past to present. We discuss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Keywords: Societal Anxiety; Change Pattern of Societal Anxiety; Personal Representation; Social Represent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7년 12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2월 9일

부록 1.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범주와 그 사건들

정치 영역

공직자의 비리
 권위주의적 정치형태(비민주적인 정치형태)
 불법 군 입대 면제, 세금포탈 등 사회지도층의 불법행동
 정부의 갈등조정능력 부재
 정부의 외교능력 부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정치불안(국정혼란, 정당간 싸움 등)
 정치지도자의 부정부패

경제 영역

개인 신용불량
 민생 경제불안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불안정 고용(임시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국제 유가의 급등, 환율의 급격한 변화 등)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하락(신용등급 하락 등)
 자영업의 붕괴
 주식시장의 불안
 취업난(실업, 미취업자의 증가 등)

사회보장 영역

국민연금 고갈
 노령화 시대에 대한 사회적 제도 미비(국민연금, 노인복지 제도 등)
 노숙자, 사회빈민층의 증가
 사회 보장제도 미흡(장애우/육아시설/노인/저소득층 등)
 의료보험제도의 부실
 출산율 저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통일/안보영역

남북한의 통일로 인한 변화
 북한 핵문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테러

교육 영역

공교육의 붕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 분야의 과열경쟁
 대학 부정입시
 대학입시제도의 잦은 변화

안전사고 영역

건축물/다리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
 상수원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
 대형 교통수단 사고(지하철/항공기/철도 등)
 태풍,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집단갈등 영역

공공 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파업(은행, 지하철, 버스 등)
 극단적 노사갈등
 빈부격차, 빈곤층의 증가
 연고주의(지연, 학연 중심의 인사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원전, 쓰레기소각장, 장애학교 등 설치반대)
 이익집단의 집단행동(폭력시위 등)
 지역갈등(정치, 인사문제, 지역개발 등에서의 지역간 대립)
 지역 불균형

범죄 영역

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자마 범죄
 성범죄
 식품 위생 관련 사건의 발생(유해식품, 비위생적 제품의 유통 등)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화 영역

감시 카메라
 개인 정보유출
 도청과 같은 녹취 등
 몰카
 사이버 테러
 인터넷 사용시 실명제
 정보격차(정보화시대에 뒤처지는 것)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휴대폰 사용에 의한 사고
 휴대폰을 집에 놓고 오거나 분실

윤리 영역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이혼
 인간복제
 자살
 전통윤리의 붕괴

질병 영역

사스, 에이즈 등 치명적 질병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같은 가축 전염병

기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해외이민